



金 慕 妊 박사

<본회이사, 연세간호대학교수>



1960년대에 이르러 해외 인력진출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해외개발공사가 창립 7년만에 해외 인력진출 세미나를 가졌고, 그 당시 노동청장의 말씀에 의하면 해외 인력진출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온 이래 처음이었다는 발언이 있음을 미루어, 이번이 두번째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이번 세미나는 전문 직업인 단체가 주최 했다는 점에서는 두번째가 아니라 첫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으나 늦게나마 가질 수 있음은 무척 다행한 일이며, 우리 간호원의 해외취업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과 그 전망을 이 세미나를 통해 검토해 봄은 간호원이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만이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역군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찰의 임무라 생각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결실을 오늘 의 이 모임을 통해 얻기 바라마지 않는다.

전산초박사(본회 회장)는 주제강연에서 지난 10여년간의 우리나라 인력 해외진출 사업의 목적을 대략 4가지 즉,

- 1) 민간 사절로서의 국위 선양
- 2) 외화 획득, 3) 선진 기술 습득
- 4) 국내 실업 완화로 나누어 보고, 그 동안의

해외 취업진출 인력중 중요인력의 하나인 간호원의 경우, 과연 이상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느냐를 검토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의 해외 취업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전망해 보셨습니다. 이 검토와 전망속에서 국가가 목적하는바 네가지 면에서 많은 득과 실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진출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고, 명실공히 간호원의 해외 진출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위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 검토, 개선 되어야 할 일이 많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중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만 간추려 요약자의 말로 엮어보면,

Ⅰ. 민간 사절 또는 국위 선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보다는 교환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한 형태이며, 경제적 견지에서 취업의 형태를 취할때는 간호원 해외 취업이 민간사절로서 국위선양이 되도록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이 주도한 교육과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개인적 차원에서 오늘날과 같은 무계획하게 소개됐던 한국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한국문화 소개와 민간 사절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국가 는 一石二鳥 또 三鳥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음을 확신한다.

②. 해외 인력진출로 명실공히 외화 획득을 위해 성실히 조국에 송금함으로써 이바지하고 있는 인력은 간호인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수기술인력, 더우기 전문 직업인 육성투자에 대한 상환으로 생각해 볼때 과연 국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화 획득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간호원 해외취업에 대한 장, 단기 정책화 계획이 국가와 간호협회와의 긴밀한 유대 가운데 조속히 설립될 것이 크게 요청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간호원의 교육년한이나 기술의 우위성을 고려할 경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만족할 수 없다. 정당한 처우가 마련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협상이 요청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있어야겠다.

③. 선진 기술습득이란 견지에서서는 문제가 많다. 외국이면 모두 선진국일 수가 없다. 선진 기술습득이 목적이려면 선진 기술습득이 가능한 국가에 취업이 아닌 훈련 파견 형태로 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할 선진 기술이 무엇인지조차도 생각해보지 않고 선진 기술습득이 무엇때문에 필요하며 또 어떻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④. 국내 실업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있었다면 Underemployment가 있었고, 이 Underemployment 현상으로 취업의사가 있어도 취업치 않고, 무 간호원 지역, 간호원직이 공석이었던 현상이 있었다고 본다. 해외 진출은 간호계 학교의 정원이 장기적 안목없이 응급처치로 늘게했고, 간호보조원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간호원의 자질, 지위, 보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 또 앞으로 해외 진출이 용이치 않는한, 국내 실업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의 앞으로가 몇년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올해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해외진출이 국내 실업완화를 가져왔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며 국내 실업을 유발시켰다고 해도 우리가 아

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문교부, 보사부, 경제기획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

⑤. 해외 취업에 임한 간호원중 적지 않은 수가 기혼여성이라고 한다. 이들은 가족과 극가로부터 이중적인 분리로 새로운 환경의 적응 및 극복에 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둔 비정상적인 가정상태로 말미암아 사회적 문제를 가져다 줄 우려가 크다. 해외 취업시 가족을 특별히 등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나 주기적으로 가족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상의 문제들은 그 동안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득과 실과 함께 1) 간호학적 견지에서 2) 사회학적 견지에서 3) 정치학적 견지에서 4) 경제학적 견지에서 5) 의학적 견지에서 재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에 이경식박사의 간호학적 견지에서의 간호원의 해외 취업과 전망이란 발표를 요약하면, 1965년도 이후 간호원의 해외 진출은 한국 간호에 양적 혁명을 가져온 동시에 여성 전문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직 간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교육 투자면에서 국가적 손실이며 국민 보건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 단기간 동안의 270%~400%의 학생정원 팽배 현상을 가져와 양적 혁신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시설 확충, 자격있는 교수진의 확보등의 사전 준비가 없음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함께 가져왔다.

2) 간호업무면에 있어서는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고 봤다. 병원 간호인력의 평균 50%의 이동을과 보건 간호인력의 총원이 어려워 10여년간 활동을 하지않은 간호원을 재교육없이 충원하는 일대 모험을 간호 행정자들은 감수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강화의 한 방안으로 육성된 간호보조원은 의료기관의 기용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

다. 이런 일선 간호업무의 혼란은 환자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질적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 3) 한국의 간호 전문직이 지리적 또는 국가적 경제없이 그 활동 무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제기를 제공함은 전문직 발전을 위한 이바지라고 볼 수 있으나 이로인해 취업국 간호단체로 부터 거부적인 태도와 비난은 국제간호협회 회원국인 대한간호협회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문직 간호원과 보조직 간호보조원을 통칭하여 간호원으로 보도진이 취급하기때문에 전체 전문직 간호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 4) 간호원의 해외 진출전망을 두고 집단고용계약체결이 조만간 불가능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

안계춘박사는 사회학적 견지라기 보다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고 간호원의 해외 진출과 전망은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밑에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 간호원의 해외 취업이 우리 사회발전에 가져다 주는 이점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주었다.

- 1) 간호원의 실업이 심각한 문제라면 그것은 간호원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계획의 차질에서 온 문제이며 일시적으로 해외취업이 이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서 찾아야 된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할 중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훈련된 간호원 서비스를 골고루 받고 있는나 하는 것이며, 국민보건향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원의 국내에서의 취업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 2) 외화 획득에 액수만을 내세워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계산하기 쉬운 외화 획득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 용이 하지않으나 국내에서 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원 해외 이민 취업은 일종의 두뇌 유출 현상이라고 했다.

- 3) 선진 기술 습득이 무조건 우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설혹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고 해도 그것이 다시 우리사회에서 활용되지 않는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상승된 기대수준의 좌절로 국가발전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4) 국가간의 정치적 경제적 융성을 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원의 해외 취업이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공필이 우리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일부 비난은 결코 국위 선양이라고 안일 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했다.
- 5)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간호원의 해외 취업은 장기적으로 볼때 그 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다.

박동서박사는 정치 행정측면에서 간호원의 해외 취업은,

- 1) 개인으로는 높은 수입을 통한 수익의 증진을 할 수 있으며, 간호원의 높은 송금율을 들어, 가득몰이 아주 높은 외화 획득으로 국익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고,
- 2) 외국의 사회문화 기술습득 및
- 3) 우리나라 문화소개 및 국위선양,
- 4) 애국 애족심의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력 향상 및 정치적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이점은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탁희준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간호원의 해외 진출은 비단 분급소득에 의한 개인적 이득으로 볼 수 없는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고 해외 취업 노동력 가운데 대량의 집단

진출이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진출이 계속될 유일한 전문직종의 부인노동 부문이라고 했다. 간호원의 해외 취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 1) 실가득을 100%의 높은 의회 수입으로 오히려 일반 수출을 증가하는 국가 경제의 공헌이 크며,
- 2) 실업문제 해결의 적극적 공헌이 되며,
- 3) 선진국의 의료 보전에 관한 지식,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가 되며,
- 4) 우리나라 노동시장내에서 간호원 자체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직 부인 노동의 지위와 대우를 개선하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견해를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간호원의 해외 진출은 국가 정책으로 전면 지원되어야 하며 해외 노동시장의 개척을 위한 종합적 고용정책 가운데 간호원의 해외 진출은 그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점박사는 우리나라 보건인력 관리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는 약 5000명의 간호원이 해외에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을 의회 획득, 의회기술 교류 및 선진된 보건관계 학문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정책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으나 이런 긍정적 평가에 앞서 막대한 사회 자본 투자에 의해 생산된 보건인력 유출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일반론도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공과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 요원의 해외 유출을 걱정하고 있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격이 될지도 모르며, 바라건대 보건인력의 수요와 공급은 적어도 10년을 단위로 30년, 50년에 걸쳐 긴 안목으로 줄수를 피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이상 주제강연에 이어 다섯 저명 학자의 견해는 간호원의 해외 취업과 전망을 두고 주어진 한계속에서 최대한의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간호원의 해외 취업이 국가발

전,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바와 취업전망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 재 검토와 연구가 절실히 요청됨을 잘 지적해 주었다고 본다. 논의된 간호원 해외진출로 인한 국가적, 전문직업적 득과 실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이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1965년이래 정부의 해외 인력 수출의 일환으로 간호원의 해외 취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으나, 정부나 대한간호협회가 올바른 판단의 바탕이 될만한 자료를 마련치 못하고 있었음은 큰 실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와 협회가 앞으로도 이런 실책을 재연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다.

오늘 여섯분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요약자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언코저 한다.

- 1).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정부는 관계기관 및 대한간호협회 자문하에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간호인력 수급 및 관리계획을 위한 연구를 하루속히 시작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보건인력 수급 및 관리라는 상설기구를 정부 정책기구로 설치하여 합리적으로 간호인력 수급 및 관리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이 관계 간호전문가의 기용을 요청한다.
- 2). 1)과 같은 장기계획을 위한 판단합동의 노력을 하는동안 또 하나의 장 단기 정책과 계획이, 국내 간호원의 자격, 지위, 보수, 면에서 수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특히 정부관리의 보수기준 범규를 개정하여 간호원에게 「남녀동일, 노동동일, 일급의 원칙」에 입각한 전문직 보수기준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상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되는 과업으로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기 어렵다. 이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방안은 오늘날 당장 우리에게

당면한 간호원의 해외 진출에 따른 문제와 전망을 밝게 하는 데의 방안은 못된다. 더욱이 우리 간호원은 이미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유적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대증요법이라도 마련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으로써 인력 해외 진출에 따른 네가지 목적을 설정했다. 설정된 목적이 이루어 지도록 우선은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협동하여 상부상조 하여야겠다. 따라서

- 1) 무엇보다 먼저 박동서박사와 이경식박사의 발표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이미 진출된 간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급적 정확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설정된 목적(국가 이익에 비추어)에 비추어, 간호원의 성분, 취업동기, 수입, 송금액, 귀국율, 귀국후적응, 또 진출지역에서 생활형태등이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진출 분포와 활동을 알 수 있는 연구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연구를 시행하든지, 대한간호협회가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겠다.
- 2) 탁희준교수가 지적한바 해외시장의 조사및 확보정책과 해외시장을 합리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체제·구비와 이경식박사가 우려하는 대량생산된 간호상품을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만이 가능할때 전문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실업문제, 사회 안정과도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으로 국가적 대책이 국내외적으로 강구 개발되어야 한다.
- 3) 간호원해외 진출이 국민 경제적 의의가 큼을 미루어 탁희준교수는 간호원의 질, 양,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은 종합적 기술, 인적 자원 개발계획 가운데 핵심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가득율이 20%내외밖에 안되는 가공업자에게는 막대한 보조 지원을 다방면으로 정부는 제공하면서 이에 비해 가득율이 엄청나게 높은 간호원 해외진출사업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평가하

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4) 해외 진출로 인한 갑작스러운 간호교육 팽배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각급 간호교육 제도를 총괄 자문할 수 있는 문교부의 고위 간호교육 행정직 설치에 대한 이경식박사체의를 적극 지원한다.
- 5) 해외 진출 사전 사후관리, 해외생활 환경, 취업 환경, 사회적 제조건에 적응을 고려한 조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령, 해외취업 간호원의 자격검정이 필요하다. 만일 학력면에서 파잉자격을 가진 간호원이 진출할 경우 취업의 만족도는 알기 마련이다. 취업지에서 요청되는 간호활동에 대한 검토결과에 기반을 두고 해외 취업자격 요원을 재 검토한후 적체 적소로 배치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박동서박사가 지적한 바와같이 유럽, 특히 서독 백림에 취업하게 되는 간호원을 위한 사상문제를 출국전 교육 내용으로, 정치이념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는 차원에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해외 생활환경, 취업환경 적응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을 돕고 행정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간호 전문인을 간호 지도관으로 파견이 필요로 된다. 계약된 기간동안 취업하고 귀국후 취업대책도 강구 되어야겠다.
- 6) 한국경제가 배출된 노동력을 완전히 흡수 할만큼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킴으로 간호인력 해외진출문제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게 될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당분간 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우리의 실정임을 인정하여, 간호원 해외진출 정책, 조사, 개척, 송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잘계획된 해외인력 진출이 수행 되어 질 수 있기위해 이해의 기반위에 정부와 전문 직업단체 및 국민이 협조 하여야 겠다는 말로 요약의 말씀을 끝맺고저 한다.